

한옥마을서 여름휴가 즐겨요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지침서인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3대 명소인 전주에서 민간주도의 특색 있는 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이색적인 여름휴가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더운 여름과 전장을 선포하는 2016 전주 물총축제 '위터워즈'가 오는 30일과 31일 전주 시청 노송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온두레 공동체인 '왕오빠와 아이들'과 자발적으로 모인 전주의 청년들이 2016 위터워즈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다. 물총 싸움뿐만 아니라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와 함께

아시아 3대 명소 전주, 민간주도 여름축제 풍성

하는 댄스와 밴드, 힙합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 전통의상 체험과 물의 경고, 물과의 전쟁, 물의 반격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펼쳐진다.

위터워즈 조직위원회는 축제를 제대로 즐기기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물품보관소와 탈의실, 수건, 방수팩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이용권(사전구매 1만원, 현장판매 1만5000원)과 물총도 판매한다.

위터워즈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전주'의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며 "문화행사에 목마른 시민들에게 뜨거운 여름에 대비 같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주만의 독특한 생활음주문화로 자리 잡은 가맥(가게맥주)업체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16 가맥 축제'도 펼쳐진다.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맥콘서트, 소맥위드스타, 버스킹공연,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또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타투그리기, SNS를 활용한 사진 업로드 이벤트 '가맥 찍고, 소맥지격증 발급, 아이스 볼링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설치된다.

이밖에도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야간 콘텐츠인 전주마당창극 '하나 옛다, 배갈라라'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통문화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지며, 매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평일 상설공연 '2016 한옥마을 유유자적(悠悠自適)'이 진행된다.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여름밤 시원한 영상으로 관광객들의 무더위를 씻어줄 풍납문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전주는 세계 배낭여행자의 바이블로 불리는 론리플래닛이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3대 명소이자, 연간 천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다"며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추가 개발로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문화예술인들 협동조합으로 뭉쳐

한지산업지원센터서 창립총회

전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후배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왕성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 뭉쳤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 문화예술인 30여명은 이날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가칭)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발전과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은 그간 운영되는 각종 작은 협동조합이나 단체와는 별개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다각적인 공생과 공조를 모색하고, 문화·예술의 지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며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청년문화예술 협동조합은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조합 설립 취지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문화예술 협동조합은 현재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타 직종에서 일하는 도내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졸업자들의 갈증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젊은 문화 예술가들을 위한 자금 마련과 사업구상, 일터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들은 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도시환경과 문화관광 등 전주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도시발전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의견수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주는 도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내일을 준비를 부지런히 준비해 도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문화로 가득한 전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역사(驛舍) 전면 개선 절실”

시,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건의

전주시가 35년 전에 지어져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驛舍)의 전면 개선을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전주시는 26일 한옥마을 내 최명희 문화관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1000만 관광객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사는 제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전면 개선을 건의했다.

전주역은 지난 1981년에 신축했으나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실례로 지난해 말 현재 전주역 이용객 수는 256만명으로 2010년 보다 128만명이 증가하면서 전국 역 가운데 서울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를

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슬로시티 확대 재인증과 세계적인 배낭여행 지침서인 '론리플래닛'이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의 10대 명소에서 전주를 3위로 선정하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전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도 대합실을 비롯한 내부시설과 주차장 등 각종 제반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 한국철도공사가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하려 하지만 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시는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용과 전주의 첫인상 개선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또 오는 2022년 전주 세계전통문화엑스포 유치가 국가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국제행사인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를 위한 국비 반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은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는 최근 아시아 3대 명소로 손꼽히며 이제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전주역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대표 관문인 만큼, 전면 개선을 통해 도시의 첫인상을 품격 있고 쾌적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교회만 골라 턴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교회와 사택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택에 침입해 현금 14만원과 금반지 2개(시가 60만원 상당) 등 2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올해 4월 말까지 전주시내 교회와 사택을 들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전북경찰, 군산공항 특별점검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군산공항과 군산 국제해항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전북경찰청 진교훈 제1부장, 이동민 보안과장 및 실무계장 등이 직접 나서 테러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경찰은 이날 테러로 상황 발생 시 즉응태세 확립 여부, 공항공사?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여부, 군산공항 보안경찰과 국제해항의사경찰 근무태세 확립 여부, 총기 등 장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박용주 기자



덕진경찰서는 25일 시민경찰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시민경찰연합회 윤재홍 회장 등 4명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덕진경찰, 시민경찰에 감사장 수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지난 25일 덕진구 외부 식당에서 시민경찰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덕진 시민경찰연합회 윤재홍 회장 등 4명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덕진시민경찰은 여성들이 야간 시간대 주로 이용하는 공원주변에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지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활동(캠페인, 청소년 선도 활동, 자원봉사 등)으로 치안 민중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치안 지킴이로서 덕진서에서 추진 중인 여성안심 구역 등 범

죄취약지역을 월 2회 합동 순찰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치안 조성에 노력해왔다.

감사장을 받은 시민경찰은 "우리 마을,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키는 주인 의식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구 덕진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시민경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찰 업무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과 열정으로 협력치안의 모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